대한지리학회지 제48권 제3호 2013(417~432)

학회·학과·연구소를 중심으로 본 중국지리학사: 1909~1978

이강원*

A Study on the History of Geography in China: 1909~1978

Kang-Won Lee*

요약 : 이 논문은 중국지학회 창립(1909년)부터 개혁개방(1978년) 무렵까지 중국 지리학의 역사에 대해 주로 학회조직, 대학의 학과,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중국지학회, 우공학회, 중국지리학회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 창설된 지리학 관련 학회였다. 이 학회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지리학회로 통합되었다. 1921년 중국 최초의 지리학과가 주커전(竺可楨)에 의해 난징의 둥난대학(난징대학)에 창설되었다. 이후 중산대학, 저장대학, 칭화대학, 베이징사범대학 등에 주로 '지학(地學)' 또는 '사지(史地)'라는 명칭 하에 지리학 전공이 설치되었다. 1949년 공산정권 수립 후 1958년까지 소련식 지리학의 도입을 통한 활성화가 모색되었다. 1950년대 초 학회와 대학 학과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었으며, 베이징대학 지질지리학계를 비롯한 지리학 관련 학과들과 중국과학원 지리연구소가 설립되었다. 1950년대 중국의 지리학은 농업생산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자연지리학과 경제지리학 위주의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58년 대약진운동 이후 1978년 개혁개방 무렵까지 중국지리학은 침체상태에 있었다. 개혁개방은 중국 지리학에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로 다가왔다.

주요어 : 중국지학회, 우공학회, 중국지리학회, 지학계, 지리학계, 지리연구소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history of geography in China from 1909 when the Chinese Geographical Society(*zhonguo dixuehui*) was established to 1978 when the reform and open policy was initiated. The investigation was done with an emphasis on the history of institutions like academic societies, university departments and institutes. Before the PRC's establishment, the Chinese Geographical Society, the Chinese Historical Geography Society(*yugong xuehui*) and the Geographical Society of China(*zhongguo dili xuehui*) were established. After the PRC's establishment, however, the academic societies were merged together. The first university department of geography was that of Dongnan university(Nanjing university) established by Zu Kezhen in 1921. Since that Zhongshan university, Zhejiang university, Qinghua university, Beijing normal university and Beijing university established the geography departments. In 1950s the academic societies and university departments experienced the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 and the Institute of Geography in Chinese Academy of Science was established. At that time the task of geography imposed by PRC was to serve to agricultural production and to introduce advanced Soviet science. From the beginning of the Cultural Revolution in 1966 to the eve of reform and open policy in 1978, the geography in China has experienced some deep recession. The reform and open policy was a new opportunity and crisis to geographers in China.

Key Words : the Chinese Geographical Society(*zhonguo dixuehui*), the Chinese Historical Geography Society(*yugong xuehui*), the Geographical Society of China(*zhongguo dili xuehui*), Department of Geography, Institute of Geography.

이 논문은 2011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 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haekong@jbnu.ac.kr

1. 도입

이 논문의 목적은 1909년 중국지학회(中國地學會)의 창립부터 1978년 개혁개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중국 지리학계의 변화를 주로 학회, 대학의 학과,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 시기의 중국 지리학에 대해 다루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 때문이다.

첫째, 이 시기 중국에 도입된 지리학이 서양 대학들의 학과체제 하에서 지리학과가 창설된 이후의 지리학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지리학은 19세기 후반 서양에서 그 문제의식이 형성된 학문으로서 지리학이며, 그러한 지리학이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시기이다.

둘째, 이 시기에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 중국에서 진행되어 온 지리학 연구의 특수성이 배태되고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지리학은 다른 나라들의 지리학과 보편성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제도적·내용적 특수성들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특수성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셋째, 한국 지리학계의 중국에 대한 관심과 교류에도 불구하고, 그간 중국의 현대 지리학에 대한 소개는 매우 드물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전통지리학이나 서양학문 도입기 또는 근대 초기의 지리학에 대한 연구들(임종태, 2003; 한지은, 2011)이 있었지만, 20세기 초 이래의 지리학에 대한 소개 내지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주로 중국과학원 지리과학 및 자원연구소(中國科學院 地理科學與資源研究所) 도서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지학잡지(地學雜誌)』, 『우공(禹貢)』, 『지리학보(地理學報)』 등의 학술지와 중국 지리학자들이 펴낸 각종 서적 및 보고서들을 접할 수 있었다.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중국지학회가 설립된 1909년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1949년 사이의 기간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1949년부터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까지의 기간을 살펴본다.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 고안된 시기구분을 학술사에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지만, 적어도 중국의 지리학은 제도적으로나 내용적으로 1949년 이전과 이후가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1978년 이전과 이후 역시 그에 못지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 구분을 택하였다. 각각의 시기에 대해 학회, 대학의 학과, 연구소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학회·학과·연구소의 창설: 1909~1949

1) 학회의 창립: 중국지학회, 우공학회, 중국지리학회

(1) 중국지학회

중국지학회는 1909년 9월 28일 톈진에서 결성되었다. 설립 당시 학회의 본부는 톈진(天津)의 허베이 제일 몽양원(河北 第一蒙養院)에 있었다. 최초의 지리학 및 지질학 관련 학술단체였으며, 발기인들은 지리학 및 지질학자에 국한되지 않았고 국학자 장빙린(章炳麟), 지리학자 바이메이추(白眉初), 지질학자 쾅룽광(鄺榮光), 수리학자 우퉁쥐(武同舉), 역사학자 천탄(陳坦), 교육가 장보링(張伯苓), 차이위안페이(蔡元培) 등 명망가들이 망라되었다.

중국지학회의 초대회장은 장샹원(張相文: 1867~1933)이었다. 그는 1899년부터 상하이 난양공학(南洋公學), 톈진 베이양여자고등학교(北洋女子高等學校)에서 지리학 교육에 종사하였다. 1901년 『초등지리교과서』(2책)와 『중등본국지리교과서』(4책)를 출판하여, 2백만 부 이상 판매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는 중국에서 지리교재 출판의 시작이었고, 처음으로 '교과서(教科書)'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교과서'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비롯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내용과 체제에 있어서 일본에서 출간된 동류의 서적들에 기댄 바가 있다. 그는 『지문학(地文學)』(1908), 『최신지질학교과서』(1909: 4책)를 연이어 출

간하였는데, 그중『지문학』은 중국인이 쓴 최초의 근대적 자연지리(지형학) 저작이자 중국 근대지리학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唐錫仁 · 楊文衡 主編, 2000, 492). 이후 그는 신해혁명에 참가하였으며, 1917년부터 1919년 사이에 베이징대학에서 '중국지리연혁사'를 강의하기도 하였다. 그는 중국지학회 설립부터 1924년 6월까지 그리고 1928년 12월부터 1930년 1월까지 이사장(회장)을 맡았다.

1912년부터 1924년까지 실질적인 학회 업무를 주관하던 직책인 간사장은 장홍자오(章鴻釗: 1877~1951)가 담당하였다. 그는 일본에 유학하여 1911년 도쿄제국대학 지질학과를 졸업하였다. 고토분지로(小藤文次郎)가 지도교수였으며, 졸업논문은「항저우부(杭州府) 인근지역의 지질」이었다. 장홍자오는 중국지학회가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연구 · 강연 · 여행 · 편집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연구'는 순수학술연구, 개항 · 치수 · 교통인프라 · 행정구역 · 도시의 성쇠 등과 같이 행정과 관련된 지리문제, 상업 · 광업 · 농림과 같은 실업(實業)문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 '강연'과 관련해서는 봄과 가을에 지학 강연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를 초청하고, 강연내용을 출판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행'에 대해서는 회원을 소집하기 전에 준비하고, 지점들을 선택하고, 연구 · 고찰할 항목들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편집'은 학술지『지학잡지』의 간행 외에 지학총서와 교과서의 출간, 학술용어 및 지명 등의 심의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하였다(章鴻釗(1912)에서 요약).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전면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웠다. '연구' 방면에서는 그러한 연구의 당위성이 인정되었고, 일부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조직적인 연구는 전개되지 못하였다. '강연' 방면에서는 비록 강연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집중적이고 계획적인 강연회는 없었다. '여행' 방면에서는 일부 학자들의 개별적인 여행 외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편집' 방면에서는『지학잡지』와 지학총서 일부의 출판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林超, 1999, 227).

당시의 많은 학회와 마찬가지로, 중국지학회는 계속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렸다. 1930년 중국지학회는 국립베이핑연구원(國立北平研究院)과 합작하게 되었는데, 이는 오로지『지학잡지』의 출간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林超, 1999, 227). 국립베이핑연구원은 1929년 민국 정부가 베이핑(베이징)에 만든 학술연구기관으로서, 1927년 국립중앙연구원(國立中央研究院)을 난징(南京)에 만들면서 베이핑에 지방성 연구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학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베이핑대학(北平大學)의 연구조직을 기초로 만든 것이다. 연구기구는 이화(理化) · 생물(生物) · 인지(人地)의 3부로 나뉘어 있었고, 지질과 역사가 '인지' 부문에 편제되어 있었다. 당시 '지학(地學)'에 속하는 학문들 중에 당시에 가장 발달한 것은 '지질학'이었다. 열강들이 중국의 지하자원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많은 이권들이 그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정서에 고무된 많은 젊은이들이 지질학 연구에 뛰어들었다. 1913년 장홍자오를 중심으로 베이징에 지질연구소가 만들어졌으며, 1922년에는 장홍자오, 웡원하오(翁文灝), 리쓰광(李四光)을 중심으로 중국지질학회가 베이징에서 성립되어『중국지질학회지』(이후『地質學報』로 변경)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中國大百科全書〈地質學〉編輯委員會, 1993, 665; 149). 따라서 당시의 '지학'은 지질학을 위주로 지리학과 기상학이 부수적으로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지학회가『지학잡지』의 발간을 위해 국립베이핑연구원의 도움을 받은 것에는 이 연구기관의 지질학 부문에 비교적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지학회는 1910년부터 1937년까지『지학잡지』를 출간하였는데, 이는 중국 최초의 지학(지리학 · 지질학 · 기상학) 관련 정기간행물이었다. 1928년호부터 확인되는 학회와 학술지의 영문 명칭이 각각 'Chinese Geographical Society'와 'The Geographical Journal'인 것으로 보아 당시 '지학'은 'geography(지리학)'를 의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geography(지리학)'가 인문지리학, 자연지리학, 지질학, 기상학을 포함한다고 본 듯하다. 1928년호에 학술지의 영문명칭과 목차의 영문번역을 병기한 것은 아마도 베를린지리학회 창립 백주년 기념대회에 전시용 혹은 증정본으로 가져가기 위해 취한 조치였던 것으로 추측된

다.

『지학잡지』는 창간 첫해에 10호를 발간했으며, 이후 매년 12호씩 발간하다가, 1924년에는 가을호만 발간했고, 1925~1927년 사이에는 발간하지 못하였다. 1928년부터 계간지로 바뀌어 1937년까지 계속 발간되었다. 모두 181호가 발간되었으며, 1,520편의 논문과 140여 폭의 지도가 게재되었다(中國大百科全書〈地理學〉編輯委員會, 1992, 508). 초기에는 주로 자연지리학과 지질학 분야에 논문들이 편중되었고, 후기에는 상대적으로 인문지리학 분야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다(唐錫仁·楊文衡 主編, 2000, 496). 이는 1922년에 중국지질학회가 성립되어 『중국지질학회지』를 발간하기 시작하면서 지질학 및 일부 자연지리학 논문들을 게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학잡지』는 '논총(論叢)', '잡조(雜俎)', '설부(說郛)', '우통(郵筒)', '본회기사(本會記事)'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논총' 부분에는 학술논문이 게재되었다. 창간호의 경우 미국 학자 드레이크(Drake, N. F.)의 「지질의 구성과 지표의 변화」라는 논문이 실렸으며, 이후에 실린 논문들의 예를 들자면, 「첸탕강(錢塘江) 연안의 지질」, 「중국 대지체의 구조와 역사」, 「보하이만(渤海灣)의 과거와 미래」, 「최근 50년 간 중국의 수리」, 「중국의 기후」, 「장마 발생론」, 「세계 기후의 변천」, 「독일의 경제지리」, 「중국 산업지리」, 「중국 생물지리」, 「고대 지리학」, 「지리와 문화」 등이 있다. '잡조'에는 여행기, 탐험기, 조사보고서 등이 내편과 외편으로 구분되어 실렸는데, 내편은 중국에 관한 내용이 외편은 해외에 관한 내용이 실렸다. '설부'에는 주요 저술의 소개, 주요 논문의 번역, 강연의 초록 등이 실렸다. '우통'란에는 질문과 대답이 실렸고, '본회기사'란에는 학회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건 및 공고사항들이 게재되었다. 매호마다 첫 페이지에 지형도, 지질도, 수계도 등과 같은 지도를 삽입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지학회가 1912년 베이징으로 본부를 옮기면서 톈진 분회가 성립되었고, 동시에 여러 지방에 분회가 성립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제교류를 중시하여 외국학자 초청강연회를 열었고, 외교원을 외국에 파견하였다. 1909년 12월 제1차 학술강연회에는 미국 학자 드레이크가 초청되었다. 외교원에 대해서는 대외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외에 학술지를 교환하고, 서적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보내며, 원고를 수집하고, 해당국을 여행하는 회원을 응대하는 등의 업무가 규정되어 있었다. 1911년 왕퉁링(王桐齡)을 일본 주재 외교원으로 파견하였고, 1912년 웨이야오팅(魏耀亭)을 프랑스 주재 외교원으로 보냈으며, 1928년에는 야오스볘(姚士鱉)를 대표로 하여 베를린 지리학회 창립 백주년 기념대회에 참가하였고, 1930년에는 장톈쩌(張天澤)를 대표로 영국 왕립지리학회 창립 백주년 기념대회에 참가하였다(吳傳鈞·施雅風, 1999, 812-813).

중국지학회의 국제교류와 관련하여 주목할 인물 중 하나는 스웨덴 출신의 지리학자 스벤헤딘(Sven Hedin; 斯文·赫定: 1865~1952)이다. 그는 19세기 후반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국령 중앙아시아와 티베트 고원을 탐험한 경력이 있었다. 1927년 중국에 다시 입국하여 서북지역을 답사하고자 하였으나 문화재 유출 등으로 인해 거부감을 가진 중국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여러 경로의 협조를 구하다가 결국 중국지학회를 포함한 중국의 학술단체들과 연합답사단을 조직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헤딘을 중심으로 중국과 스웨덴 학자들이 연합한 형태의 답사단인 '중국·스웨덴 서북과학고찰단(中瑞西北科學考察團)'은 1927년부터 1935년까지 간쑤, 네이멍구, 신장, 칭하이, 티베트고원 등을 답사하였다. 이 답사단은 학술조직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첫째, 이 답사단으로부터 외국인의 중국에 대한 현지조사의 형식이 수립되었다. 19세기 이래 서구인들의 서북지역 탐험과 그로 인한 문화재 및 정보의 유출은 중국의 지식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헤딘 역시 그러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답사단에 중국인을 포함함으로써 문화재 내지 각종 기밀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둘째, 이러한 형식의 답사단을 통하여 중국의 학술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헤딘의 답사단은 당시 '움직이는 대학'으로 불렸다. 답사단에 소속된 10명의 중국인 학자들은 이후 중국의 학문 성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이강원, 2007, 135). 헤

딘은 중국지학회의 명예회원이었으며, 1930년 학회 강연 내용을『지학잡지』에「로프노르 및 히말라야산맥 최고봉 최초 발견의 문제」(斯文 · 赫定, 1930)라는 제목으로 게재하였다. 청 강희(康熙) 연간에 서양 선교사들이 만든『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에 표시된 로프노르의 위치는 정확한 것이었으며, 히말라야 산맥의 최고봉 역시 그 지도에 만주어로 '주무랑마아린'(성스러운 어머니의 산이라는 티베트어의 음역으로, 한자로는 '朱母郎馬阿林'으로 표시되기도 하였고, 오늘날에는 '珠穆朗瑪'로 표기됨)이라고 최초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에베레스트'라는 서양인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지학회는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이후에는 활동이 미약하였다. 1945년 중일전쟁의 종료와 더불어 활동을 재개했으나, 국공내전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1953년 중국지리학회에 합병되었다.

(2) 우공학회

우공학회(禹貢學會)는 구제강(顧頡剛)과 탄치샹(譚其驤)을 중심으로 1934년 2월 베이핑에서 창립된 역사지리학 연구단체였다. 정식 창립총회는 1936년 5월에 있었다(中國大百科全書〈地理學〉編輯委員會, 1992, 469). 회원은 대부분 베이징대학, 옌징대학(燕京大學)에서 강의한 구제강, 푸런대학(輔仁大學)에서 강의한 탄치샹의 동료 교수와 학생들이었다. 중국지리연혁사 · 중국지리연혁 지도 · 중국지명사전 · 중국민족변천사 등을 편찬하는 것, 중국의 변경지역과 수리문제 등에 대해 연구 · 토론하는 것, 역대 정사(正史) 지리지(地理志)를 고증 · 수정 · 교열 · 보충하는 것, 지방의 문화사 자료들을 수집 · 정리하는 것 등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었다.

정기간행물로 반월간 학술지『우공』을 발간하였다. 1934년 3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1937년 7월 제7권 10호까지 총 82호가 발간되었다. 이후 중일전쟁의 발발과 뒤이은 내전으로 인해 발간되지 못하였다(1966년부터 타이완의 타이난(臺南)에서 중국지지학회(中國地誌學會) 학회지로서『우공』이 발간되었다). 학회와 학회지 명칭에 '우공(禹貢)'을 붙인 것은『禹貢』이라는 기록이 중국지리연혁사의 가장 첫번째 기록이며 중국지리연혁사의 학문적 출발점이기 때문이라고 창간호의 '발간사'에 밝히고 있다. 창간호는 1934년 3월 1일자로 발간되었다. 학회지『우공』의 최초 영문 번역 명칭은 'The Evolution of Chinese Geography'였으나,『우공』제3권부터 영문 명칭을 'The Chinese Historical Geography'로 바꾸고 있다. 아마도 첫번째 영문 명칭은 '중국 지리의 연혁'이라는 의미를 담으려 했던 것 같다. 당시까지 '연혁지리학(沿革地理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었고, '연혁(沿革)'을 영역하자면 'evolution and revolution'에 가깝기 때문에, 중국 지리가 어떻게 서서히 혹은 급격하게 변해왔는가를 연구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영문 명칭은 서양학문의 체제에 따라 '중국 역사지리'라는 의미를 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연혁지리학'의 명칭을 '역사지리학(歷史地理學)'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候仁之, 1999, 230; 2009, 3-6)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공학회의 연구는 이후 '역사지리학'이라는 학문 명칭으로 대표된다. 역사지리학은 지리학의 한 영역이지만, 역사학과 공접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1949년 공산정권 수립 이후 지리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인문지리학 무용론마저 제기된 1950~1960년대의 상황에서는 역사지리학이 역사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문학이 홀대되던 상황에서 생산력발전에 기여하는 자연과학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는 지리학에 속했던 것이 학문적 명맥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결과적으로는 적어도 개혁개방 전까지는 지리학회와 지리학과 그리고 지리연구소에 역사지리학이 소속되어 있었다.

우공학회를 통하여 훈련받은 상당수의 역사지리학자들은 본래 '사지계(史地系)' 출신이었다. 따라서 상하이의 푸단대학(復旦大學)에는 지리학과가 없지만 역사지리연구소가 있고, 베이징대학에서 역사지리연구소를 이끌었던 허우런즈(侯仁之)는 역사학과와 지

리학과에 공동으로 소속되기도 하였다.

우공학회의 연구전통은 1962년에 성립된 중국지리학회 역사지리학 전공위원회(歷史地理學專業委員會)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전공위원회의 초대 주임은 구제강과 함께 우공학회를 창립한 탄치샹이었다.

(3) 중국지리학회

1933년 1월 중국지학회 창립의 주역이면서 동시에 장기간 회장을 맡아 학회 업무를 주관했던 장샹원이 사망하였다. 장샹원이 사망한지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 1933년 3월, 지리학자이자 지질학자인 웡원하오(翁文灝), 지리학자이자 기상학자인 주커전(竺可楨), 지리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장치윈(張其昀) 등 세 사람이 월간지『방지(方志)』에 '중국지리학회 발기 취지서'를 게재하여 지리학 동인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중국지리학회 조직을 추진하였다.

웡원하오(1889~1971)는 벨기에 루뱅대학 지질학 박사 출신으로, 국립베이핑지질연구소 소장을 지냈고, 국립칭화대학(國立清華大學) 지리학계(地理學系: 지리학과)를 창설하였으며, 같은 대학 총장대리를 역임하였고, 1940년대 말 국민당 정부에서 행정원 원장, 총통 비서장을 지냈다. 1949년 타이완으로 가지 않고 프랑스로 떠났으며, 1951년 베이징으로 돌아와 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을 지냈다. 주커전(1890~1974)은 미국 일리노이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기상학과 지리학을 전공하고 귀국하여 둥난대학(東南大學: 현재의 난징대학)에 지리학계를 창설하였으며, 저장대학(浙江大學) 총장, 국립중앙연구원 원사,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에는 중국과학원 부원장을 지냈다. 장치윈(1901~1985)은 주커전의 난징고등사범학교 제자로서 당시에는 국립중앙대학(현재의 난징대학) 교수로 있었다. 1943년부터 2년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있었으며, 귀국 후 저장대학 문학원 원장 및 사지계 교수로 있었고, 1949년 장제스(蔣介石)와 함께 타이완으로 가서 교육부장관 등 고위직을 지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으로 저장성(浙江省) 출신이라는 점이 있다(王永太, 2006 참조).

'중국지리학회 발기 취지서' 발표 1년 후인 1934년 3월, 중국지리학회가 난징에서 성립되었다. 초대회장은 연장자인 웡원하오였다. 당시 발기인의 명단을 보면 중국지학회에서 활동한 지리학자, 지질학자, 기상학자들의 명단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지학회 창립 당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리학과 관계가 먼 '명망가'들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회의 주소지는 난징의 국립중앙대학 지리학계였다. 재정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의 회비로 충당하였다. 어려운 시절이었으나 1934년 8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4회 국제지리학연합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중국지리학회의 영문 명칭은 'The Geographical Society of China'였다.

1934년 9월, 학회지『지리학보』가 창간되었다. 창간호에는「동남계절풍과 중국의 강우량」,「중국의 계절 분포」,「중국 인구문제의 위험성」,「장쑤성(江蘇省)의 농업지역」등과 같은 논문들과 3편의 답사기 그리고「장샹원(張相文) 전기」가 실렸다.『지리학보』의 편집은 초대 장치윈에서 리쉬단(李旭旦), 런메이어(任美鍔) 등으로 이어졌다. 1936년 3월 발행『지리학보』제3권 1호에 수록된 회원명부에는 일반회원 129명, 학생회원 70명, 기관단체회원 8처가 기록되어 있다.

1936년 6월의『지리학보』제3권 2호에는「현재 중국지리학회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이라는 학회명의의 글이 실려 있다. 당시 중국의 지리학자들은 "철도 연선의 조사, 내륙의 공업 핵심지역, 농업지리, 변경으로의 이주와 식민, 민족 혼합거주지역, 재난으로부터의 구제, 어업, 화교의 지리, 동북(만주)지리, 군사지리, 세계의 자원" 등 11가지를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런메이어(任美鍔, 1947)의『건설지리신론(建設地理新論)』과 같은 저작으로 발전되었다. 물론 그 근원에는 쑨원(孫文, 1965)의『건국방략(建國方略)』중「실업계획(實業計劃)」에 제시된 국토계획구상이 있다. 쑨원은 191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 초반에 걸쳐 당시 중국에 와 있던 서양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국토건설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인해 중국지리학회는 국립중앙대학 지리학계를 따라 충칭(重慶)으로 옮겨갔다. 이러한 상황에서『지리학보』는 1937년(제4권)부터

1944년(제11권)까지 매년 1호씩만 발간되었고, 1945~1946년에는 제12권과 제13권이 합호로 출간되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학회들은 학회지를 단 한 호도 발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1946년 중국지리학회는 다시 난징으로 돌아오면서, 『지리학보』를 본래 계획대로 계간으로 발간하기로 하였으나 1953년까지 실현되기 어려웠다.

1949년 4월 제16회 국제지리학연합 대회가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개최되었으며, 중국지리학회는 린차오(林超)를 대표로 파견하였다. 이 대회에서 국제지리학연합에 가입신청을 하였고, 회원국으로 승인되었다. 이 활동이 중국지리학회가 '중화민국(中華民國)'의 이름으로 수행한 마지막 국제활동이었다.

중국지리학회가 난징에서 창립됨으로서 1934년 이후에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중국지학회, 난징을 중심으로 한 중국지리학회라는 구조가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주의적 경향이 강한 중국사회의 풍토 속에서 장기간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2) 학과의 창설: 베이징과 난징

(1) 베이징

중국에서 대학에 지리학 과정이 최초로 설치된 것은 1904년이다. 그해 베이징의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 문학과(文學科)에 중외지리학문(中外地理學門)이 설치되었고, 격치과(格致科)에 지질학문(地質學門)이 설치되었다. 1912년 경사대학당이 국립베이징대학으로 바뀌고 대학과 학과의 편제가 조정되면서 지리학 과정은 학과로서의 명칭을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1952년 베이징대학에 지질지리학계가 설립되기 전까지 베이징대학에는 지리학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지질학계만 있었다.

한편, 1902년 경사대학당 사범관의 교육과정에 역사와 지리가 편제되어 있었고, 1923년 이 학교가 베이징고등사범학교를 거쳐 베이징사범대학으로 개편되면서 사지계(史地系)가 설립되었다. 이 사지계가 1928년에 역사학계와 지리학계로 분리되면서, 독자적인 지리학계가 성립되었다. 당시 지리학계에는 셰자룽(謝家榮), 류위펑(劉玉峰), 황궈장(黃國璋), 왕이야(王益崖), 쩌우바오쥔(鄒豹君) 등이 교수로 부임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중국지학회의 회원들이었다(베이징사범대학 지리학계는 현재 '지리학 및 원격탐사과학대학(地理學與遙感科學學院: 영문명칭은 'School of Geography')'으로 확대되어 맥을 잇고 있다).

1928년 국립칭화대학에 지리학계가 설립되었다. 이는 국립중앙연구원, 국립베이핑연구원, 국립중앙대학 등의 설립으로 교육체제에 일대 혁신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 지질·지리학자 웡원하오가 국립베이징대학에는 이미 지질학계가 있으므로 국립칭화대학에 지리학계를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에 건의하여 설립되었다(王恩涌·李文彦·陳昌篤, 1999, 231-232). 웡원하오는 당시 국민당 정부와 교육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1928년 9월 웡원하오를 학과장으로 하여 학과가 설립되고, 1929년부터 학생을 모집하였다.

중국 지리학의 역사에 관한 논의에서 웡원하오에 의해 국립칭화대학에 설립된 학과가 '지리학계(地理學系)'였는지 '지학계(地學系)'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中國大百科全書〈地理學〉編輯委員會, 1992, 439). 그러나 우리나라의 동아일보(1934년 11월 27일자 3면)에 실린 '중국유학안내(中國留學案內)'라는 기사에 국립칭화대학 이학원(理學院) '지리학계(地理學系)'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지학과가 아니라 지리학과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에서 국립베이징대학은 이학원 내에 '지질학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립칭화대학 지리학계는 시기는 불분명하나 1930년대 중반(일설에 의하면 1933년)에 명칭을 '지학계'로 변경하고 내부에 지리, 지질, 기상의 3개 전공을 운영하였다. 웡원하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학과 소개서에는 "사람과 땅의 관계(人地關係)를 연구하는 자는 지리학을 하는데, 자연지리, 인문지리, 종족지리, 경제지리, 정치지리, 지역지리 등이 이에 속한다."(王恩涌·李文彦·陳昌篤, 1999, 232-233에서 재인용)고 하였다. 1937년까지 45명이 졸업하였으며, 그중 15명이 지리학 전공이었다. 교원으로는 장인탕(張印堂: 자연지리), 왕청주(王成組: 인문지리),

황궈장(경제지리), 투창왕(涂長望: 기후학), 홍푸(洪紱: 세계지리), 가오쥔더(高鈞德: 지형학) 등이 있었고, 웡원하오와 바이메이추가 '중국지리통론'과 '중국지리 주제연구'를 강의하였다(王恩涌 · 李文彦 · 陳昌篤, 1999, 232-233).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창사(長沙)에서 대학들이 연합하여 창사임시대학(長沙臨時大學)을 열었으며, 다시 쿤밍(昆明)으로 이동하여 전시 임시 연합대학인 시난연합대학(西南聯合大學)을 열었다. 이 대학 내에 국립칭화대학 지학계와 국립베이징대학 지질학계가 연합하여 지질 · 지리 · 기상학계를 개설하였다. 지리학 분야에는 국립칭화대학 소속 지리학 교수들 외에 바오줴민(鮑覺民(본래 난카이대학(南開大學) 소속: 경제지리), 중다오밍(種道銘: 정치지리, 문화지리), 다오사오위안(陶紹淵: 북아메리카지리), 류한(劉漢: 남반구지리) 등이 있었다 그러나 전시 피난 중이었기에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대신 쿤밍 근교지역에 대한 지리조사와 야외실습이 주로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21명이 지리학 전공으로 졸업하였다. 1946년 5월 전시 시난연합대학이 해산되었고, 그해 10월 국립칭화대학 지학계가 회복되었다. 1947년 기상학계가 독립되어 나갔고, 지학계에는 지질학조(組: 과정 또는 전공)와 지리학조가 유지되었다. 국공내전 중이었던 1946~1949년 사이에도 13명의 지리학조 학생이 졸업하였다(王恩涌 · 李文彦 · 陳昌篤, 1999, 234-235).

(2) 난징

한편 난징에서는 1921년 둥난대학에 지리학계가 설립되었다. 여기에는 주커전의 노력이 컸다. 둥난대학의 전신은 난징고등사범학교였으며, 그는 1920년 이 학교에 문사지부(文史地部) 지리학 교수로 부임하였다. 1920년 말 이 학교가 둥난대학으로 확대 개편되자 1921년 문리과(文理科) 내에 '지리학계(地理學系)'를 설립하고 학과장을 맡았다. 1924년 지리학계 내에 지질학 과정을 증설하고 학과명을 '지학계(地學系)'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1921년부터 1924년까지 존재했던 둥난대학 '지리학계'가 중국 대학에 최초로 설립된 독자적인 '지리학과'였다고 할 수 있다.

1926년 둥난대학 문리과는 문과와 이과로 분리되었는데, 지학계는 이과에 소속되었다. 1927년 둥난대학이 제4중산대학(第四中山大學)으로 개편되면서 이학원 내에 지학계가, 문학원 내에 사지계가 설립되었다(中國地理學會秘書處編, 1999, 41). 지학계에서는 지질학과 자연지리학이, 사지계에서는 인문지리학과 역사학이 주로 다루어졌다. 1928년 2월 제4중산대학은 장쑤대학(江蘇大學)으로 개명되었으며, 그해 5월 다시 국립중앙대학으로 개칭되었다. 이는 1928년 난징에 국립중앙연구원을 설립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으며, 곧 중국 최고의 국립대학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기도 하였다. 당시 중화민국의 수도가 난징이었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 국립중앙대학으로 개칭되면서 문학원 내에 있던 사지계의 지리학 과정은 이학원에 있는 지학계로 흡수되었다. 1930년 지학계에서 지리학계가 독립되었으며, 초대 학과장으로 인문지리학자 후환융(胡煥庸: 1901~1998)이 취임하여 1942년까지 재임하였다. 그는 이 대학의 전신인 난징고등사범학교에서 주커전으로부터 배웠으며, 프랑스 파리대학에 수학하였다. '헤이허(黑河)-텅총(騰沖)을 잇는 인구분포 구분선'을 제시한 인구지리학적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로 대학은 충칭으로 피난을 갔으며, 1946년 5월 난징으로 돌아왔다. 1928년부터 1937년까지 총 51명이 지리학계를 졸업하였고, 1938년부터 1946년 5월까지 전시연합대학 체제하에서 총 32명이 지리학계를 졸업하였다. 1942년부터 1952년까지 학과장은 리쉬단(1911~1985)이었다. 그는 후환융의 제자로 영국 캠브리지대학에서 석사를 받은 인문지리학자였다.

이외에도 1949년 이전 종합대학에 설립된 지리학 관련 학과로는, 1929년 주자화(朱家驊)를 중심으로 광저우(廣州)에 설립된 중산대학(中山大學) 지리계, 1936년 주커전과 장치윈을 중심으로 항저우(杭州)에 설립된 저장대학(浙江大學) 지학계 등이 있다.

3) 중국지리연구소의 설립

중화민국 시기에 중요한 국가급 연구조직으로는

1927년 설립이 발의되고, 1928년에 정식 설립된 국립중앙연구원이 있다. 일종의 학술원 조직이자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1927년 11월 공포된「국립중앙연구원조직법」은 "중앙연구원은 중화민국 국민정부 직속으로 하며, 중화민국의 최고학술연구기관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臺灣 國立中央研究院 홈페이지). 따라서 이 조직 내에서 학문적 시민권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 그 법의 조례에는 중앙연구원 내에 물리, 화학, 공정, 지질, 천문, 기상, 역사언어, 국문학, 고고학, 심리학, 교육, 사회과학, 동물, 식물 등 14개의 연구소를 둔다고 규정하여, '지리'라는 분야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였으며, 정부는 1928년 4월「수정 국립중앙연구원조직조례」를 반포하였고, 여기에 수학, 천문학과 기상학, 물리학, 화학, 지질과 지리학, 생명과학, 인류학과 고고학, 사회과학, 공정학, 농림학, 의학 등 11개조의 학문을 열거하고 그 각각에 대해 연구소를 둔다고 하였다(臺灣 國立中央研究院 홈페이지). 지질연구소는 1928년 상하이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지리연구소는 설립되지 않았다.

1940년 충칭에서 인문지리학자 황궈장을 소장으로 하여 성립된 중국지리연구소는 국립중앙연구원 소속이 아니었다. 이 조직은 의화단의 난에 대한 배상금을 영국으로부터 돌려받아 기금으로 관리하던 중영경관동사회(中英庚款董事會)의 대표 주자화(朱家驊)가 그 기금으로 만든 일종의 사립 연구소로서 국가나 대학에 속한 조직이 아니었다. 주자화는 독일에 유학한 바 있는 지질학자로 지리학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그는 1929년 중산대학에 지질학계와 지리학계를 설립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한 바 있다(施雅風, 1999, 238). 당시는 전시였으므로 연구성과는 적었다. 그러나『지리』라는 간행물을 창간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3.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과 지리학: 1949~1978

1) 중국지리학회의 재편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중국지리학회는 두 개로 나뉘었다. 하나는 대륙에 있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중국지리학회였고, 다른 하나는 타이완으로 건너간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중국지리학회였다. 현재 두 학회 모두 '중국지리학회(中國地理學會)'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1949년 이전의 연혁을 공유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지리학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1950년 8월 중국공산당 통일전선부가 학계에 학술단체의 조직과 정비를 권고함에 따라 지리학계는 중국지학회와 중국지리학회를 통합하였다. 학회명칭은 '중국지리학회'로 하고, 베이징에 사무소를 두며,『지리학보』를 계속 발간하되 난징대학이 편집과 발행을 주관하기로 하였다. 이사장으로 황궈장이 선출되었고, 주커전, 왕청주가 상무이사에 선임되었다(地理學報編輯部, 1994, 745).

1953년 1월 제1회 전국대표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렸다. 당시 전국의 회원은 504명이었고, 대표로 80명이 참가하였다(地理學報編輯部, 1994, 745). 이 대회에서 주커전은「중국 지리학 공작자의 당면 임무」라는 개막사를 하였다(이 개막사는 1953년 6월의『지리학보』제19권 1호에 게재되었다). 여기서 그는 중국지학회가 성립한 1909년부터 당시까지 중국 지리학계의 움직임을 개관하면서, 통일단결하지 못하고 북쪽의 중국지학회와 남쪽의 중국지리학회로 서로 대립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봉건과 자산계급의 사상적 잔재가 아직도 지리학 논문들에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지리학자들이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소련의 선진 학문을 받아들이기 위해 러시아어를 공부해서 '러시아어 문맹'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하였다. 그는 지리학자들 앞에 놓인 큰 과업으로 '자연개조'를 제시하면서, 1930년대 소련에서 진행된 자연개조사업의 성과

와 그 속에서 지리학자들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지리학자는 조국의 경제건설, 특히 농업생산에 복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竺可楨, 1953, 9-12). 이 대회에서 회장에 해당하는 이사장으로 주커전이 선출되었다. 이 대회 이후 각 성에서 지리학회들이 연이어 성립되었다.

1953년 3월 24일자 인민일보에는「정치사상을 심각하게 결핍한 '지리학보'를 평함」이라는 중산대학 천톈민(陳天民)의 기고문이 실렸다(이 글은 그해 6월에 발간된『지리학보』제19권 1호에 다시 옮겨 실렸다). 이 글에서 천톈민은 지리학보에 게재된 런메이어의「쓰촨성 농업생산력의 지리적 분포」, 쉬진즈(徐近之)의「국제지리학대회 역대 개황」, 자오쑹차오(趙松喬)·바이시우전(白秀珍)의「난징 도시지리 기초 연구」등에 대하여 자산계급의 입장에 서있고, 형식주의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여,『지리학보』편집위원회는 제19권 1호에「잘못을 바로잡고, 공작을 개선한다」(地理學報編輯委員會, 1953, 120-121)는 제목으로 일종의 '자아비판문'을 게재하였다. 그 내용은 "소련의 선진 지리학 이론을 소개·선전하지 않았다는 잘못, 자산계급의 지리사상을 버리지 못했다는 잘못이 있다"고 시인하고, "앞으로는 소련 지리학의 선진적 이론과 구체적 성취 그리고 실제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중국 지리공작자가 조사·연구한 전문적인 논문과 중요한 지리자료를 주요 내용으로 싣겠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쑨징즈(孫敬之, 1953, 1-9)의「스탈린과 지리과학」과 같은 논문을 실어 자아비판을 증명하였다. 이후『지리학보』에는 소련 지리학자들의 논문을 번역하여 싣는 경우가 많았고, 동시에 서방 지리학에 대해 비판하는 논문들이 실렸다.

소련 지리학의 도입이 일정한 성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예로, 1954년 8월 중국지리학회 제1차 학술토론회에서 뤄카이푸(羅開富)가 중심이 되어 "중국 자연지역 구분 초안"을 발표하였는데(이후 黃秉維(1958)에 의해 논문으로 게재됨), 이것은 소련 지리학자들의 지도를 받은 것이며, 자연개조사업 및 경제건설을 위해 중국 국토의 형질에 대해 파악하는 틀을 마련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문제는 소련지리학에 대한 추종과 서방 지리학에 대한 비판이 좌편향적으로 전개되었다는 데 있다. 소련 역시 소비에트 혁명 이후 고난의 시기를 겪었으며, 그나마 본격적인 지리학적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1930년대뿐이었다. 1930년대의 소련 지리학은 '자연개조사업'의 영향 속에서 특수한 길을 걸었다. 곧 자연지리학, 경제지리학, 지도학으로 지리학의 대상이 좁혀졌고, 그중에서도 자연지리학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소련의 이러한 상황을 교조적으로 인식한 중국의 일부 지리학자들은 경제지리학 이외의 인문지리학에 대해 공격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경제지리학을 포함한 인문지리학 전체에 대해 비판하거나 무용론을 주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짜 과학(僞科學)', '제국주의를 위해 복무한(爲帝國主義服務)' 등의 수식어가 인문지리학 비판에 사용되었다(郭來喜, 1998, v). 1956년『지리학보』에 실린「가짜 과학 Jean Brunhes의 인문지리학 사상」(胡兆量, 1956),「제국주의를 위해 복무한 인문지리학」(張同鑄, 1956)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저자들은 당시 20~30대의 청년 지리학자들이었다. 소련 지리학 학습 열풍에 힘입어 중국지리학회는 1957년 소비에트 혁명 40주년을 기념하여『소련 지리학 40년』을 간행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소련의 지리학계에서는 1930년대의 좌편향적 오류를 비판하는 경향이 주류로 부상하였으며, 자연지리학의 생태화, 경제지리학의 사회화 현상이 출현하고 있었다. 특히 사회경제지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인문지리학을 부흥시키고 있었다(郭來喜, 1998, v). 공교롭게도,「소련을 학습하고, 소련에 감사하자」(黃秉維, 1958)라는 글이『지리학보』에 게재되었을 때, 이미 중국과 소련의 정치 지도자들은 더 이상 협조적인 관계가 아니었으며, 중국에 와 있던 소련의 지리학자들도 대부분 귀국하고 있었다. 1960년 이후『지리학보』에 소련학자들의 논문은 거의 게재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문 목차와 외국문 초록에서는 이전과 달리 러시아어가 영어보다 훨씬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1960년대 전반기에 중국지리학회 내에 각종 전공위원회(專業委員會)가 성립되었다. 오늘날 한국 지리학계의 용어를 빌자면 '전문학회'쯤으로 표현될 수 있

는 조직이다. 한국과 다른 점은 개별 연구자들의 자유로운 결사체가 아니라, 중국지리학회 이사회와 당조직 및 유관 연구기관의 합의가 있어야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1961년 가장 먼저 지형학 전공위원회(초대 주임 任美鍔)가 성립되었고, 경제지리 전공위원회(초대 주임 曹廷藩)와 역사지리학 전공위원회(초대 주임 譚其驤)가 연이어 조직되었다. 1962년 수문지리 전공위원회(초대 주임 郭敬輝), 자연지리 전공위원회(초대 주임 黃秉維), 세계지리 전공위원회(초대 주임 李春芬)가 성립되었다. 사회지리학, 문화지리학 등을 포함하는 인문지리학 전업위원회는 1983년에야 성립될 수 있었다. 자연지리학의 중시와 인문지리학의 홀대는 1950년대 초반부터 문화대혁명 직전인 1965년까지 중국지리학계가 1930년대 소련의 지리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 1930년대 소련의 자연개조에 영감을 얻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 역시 그러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었고, 중국지리학회 역시 1950년대 초반부터 문화대혁명 직전인 1965년까지 주로 농업생산을 증대시키는 문제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었다는 점과 관계있다.

1966년 문화대혁명이 일어났다. 『지리학보』는 제32권 2호에 「마오쩌둥 사상의 위대한 붉은 기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문화대혁명에 적극 참여하자」, 「계급투쟁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와 같은 해방군보(解放軍報)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사설들을 옮겨 싣고 있다. 이후 『지리학보』는 1978년까지 발행이 중단되었다. 문화대혁명 기간(1966~1976) 중 대부분의 학술활동은 중단되었고, 단지 부분적으로 진행된 활동들이 있었다. 예로, 1973년부터 '중국농업지리 총서'(21권)와 '중국자연지리 총서'(13권)가 편찬되기 시작하였는데, 출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으며, 각각 1984년과 1988년에 완간되었다. 문화대혁명 와중인 1974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지리학 존재를 대변해온 주커전이 사망하였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중국과학원 부원장으로 장기간 재직하였으며, 1953년 이래 중국지리학회 이사장(회장)을 맡고 있었다. 1976년 문화대혁명이 끝나자, 1977년부터 부분적으로 학회활동이 재개되었다. 1979년 12월 말에서 1980년 1월 초까지 광저우에서 중국지리학회 제4차 대표대회가 개최되었고, 신임 이사장(회장)으로 자연지리학자 황빙웨이가 선출되었다. 문화대혁명 이후 중국지리학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다는 의의를 부여받는 이 회의는 리쉬단을 중심으로 인문지리학의 부흥이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의의 또한 부여받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중국지리학회는 이전보다 더 많은 종류의 정기간행물을 발간하였다. 『지리학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난징대학에서 편집을 담당하고 있었으나, 1953년부터는 베이징의 과학출판사로 출판이 넘겨졌고, 1959년부터는 격월간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각 대학의 지리학과가 돌아가면서 편집책임을 맡는 체제로 바뀌었다. 대약진운동이 실패로 끝나고 뒤이어 발생한 3년간의 재난으로 인해 1960년 후반부터 발행이 중단되었다가 1961년 겨울 복간되었다. 문화대혁명이 발생하면서 1966년 6월부터 다시 발행이 중단되었고, 1978년 복간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55년부터 『지리역보(地理譯報)』가 발간되었다. 소련의 지리학 연구를 번역하여 소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소련 지리학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이 번역논문집은 1982년 『지리과학진전(地理科學進展)』(Progress in Geography)이라는 이름의 학술지로 개편되어 중국과학원 지리연구소가 편집과 출판을 담당하였다. 중국지리학회는 학술보급용 잡지도 발간하였다. 1950년 1월 대중용 월간지 『지리지식(地理知識)』이 난징에서 창간되었다. 이 잡지는 중국 과학공작자협회 남경분회 지리조가 편집 발행했는데, 1951년 중국지리학회 내에 '지리지식편집위원회'를 조직하여 편집·발행하기 시작하였다. 1953년 초에 3만 부를 발행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1957년부터는 중국과학원 지리연구소와 공동으로 편집·발행하였다. 물론 중국 현대사의 굴절과 함께 이 잡지 역시 발간과 정간을 반복했다. 1960년 후반부터 1966년 초까지 발행하지 못하였고, 대신 이 시기에 『지리(地理)』라는 격월간지가 발행되었다. 1966년 3월 『지리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복간되었으나 그해 6월 다시 발행 중단되었고, 1972년 복간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중국국가지리(中國國家地理)』라는 이름으로 발간되고 있다. 중국

에서 매우 인기 있는 월간지 중 하나이다.

2) 대학의 구조조정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후 대학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다. 정치학, 사회학, 인류학 등의 학과는 대학에서 사라졌다. 자산계급의 입장을 대변하는 계급사회의 학문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예로, 페이샤오퉁(費孝通)과 같은 인류학자는 타이틀을 '민족학'으로 바꾸었다. 경제학을 제외한 사회과학의 대부분은 1990년대에 와서야 대학에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지리학은 모스크바의 예에 따라서 자연과학이며 생산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으로 인정되었다. 대학의 구조조정 속에서 지리학과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베이징의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공산당 집권 후 가장 먼저 만든 대학이 중국런민대학(中國人民大學)이다. 1950년 이 대학의 성립과 동시에 국민경제계획계에 경제지리교연실(教研室)이 설립되었다. 이 교연실의 주임은 베이징사범대학 사지계를 졸업한 공산당원 쑨징즈였다. 1951년 그가 펴낸『경제지리학』은 1950년대에 걸쳐 대학에서 중요한 교재로 다루어졌다. 1952년 소련의 지리학자들이 오면서 생산배치이론, 지역생산복합체이론, 경제지역과 경제지역구분이론, 소련 경제지리학파 중 지역학파와 부문통계학파 사이의 논쟁에 대한 소개 등이 이루어졌다. 이 교연실은 학부, 대학원, 교원들에 대한 재교육과정 등을 운영하였으며, 중국에서 소련식 경제지리학이 전파되는 구심점이 되었다. 1955년 베이징대학 지질지리계에 경제지리전공이 설치될 때에도 이 교연실 출신들이 교수진으로 다수 참여하였다(郭振淮, 1999, 267-269).

공산당 집권 이전부터 지리학전공을 두고 있던 칭화대학 지학계는 공산당의 집권과 더불어 큰 변화를 겪었다. 경제건설을 위해 많은 지질탐사 요원이 필요함에 따라 1950년 봄 칭화대학 지학계에서 지질학계가 독립되어 나갔다(지질학계는 1952년에 다시 별도의 대학인 베이징지질학원(北京地質學院)으로 분리되었다). 그 결과 명칭은 '지학계'이지만 실제로는 지리학전공만 남은 상황이 되었다. 당시 지리학전공의 교과과정 구조상에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첫째,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소련 지리학자들의 관점과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관한 내용들이 증가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야외답사와 실습이 증가하였다. 1950~1952년 사이에 12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교수진 역시 보강되었다(王恩涌·李文彦·陳昌篤, 1999, 236-237). 1952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하여, 칭화대학은 공과대학으로 바뀌었고, 베이징대학은 文·理·法·語文 중심의 종합대학이 되었다. 교육부와 칭화대학 당국은 지리학전공만 남은 지학계를 베이징사범대학에 합병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교수와 학생들은 옮겨야 한다면 베이징대학으로 보내달라는 의견을 중국과학원 부원장으로 있던 지리학자 주커전을 통하여 교육부에 전달하였다(林超·王恩涌, 1984, 17-18). 주커전의 설득으로 교육부는 칭화대학 지학계 지리전공 교수와 학생 그리고 옌징대학 역사학과의 일부 교수진을 베이징대학으로 이동시켜 지질학계와 함께 지질지리학계(地質地理學系)를 성립시켰다. 당시 교수였던 린차오(林超)와 학생이었던 왕언융(王恩涌: 후에 베이징대학 교수 역임)은 "명칭만 지질지리학계였을 뿐 실제로는 자연지리전공만 있었다. 그러나 역으로 말하자면 자연지리전공이 있었기 때문에 지질지리학계가 성립할 수 있었다. 이후에 지질학계나 지리학계를 다시 설립하고자 해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林超·王恩涌, 1984, 18)라고 회고하였다. 1955년부터 자연지리전공 외에 경제지리전공, 지형학전공, 지질학전공 등이 설치되었다.

1950년대 말 대약진운동과 교육개혁의 와중에서 학과의 일부 간부와 학생들이 '좌편향적' 사고에 입각하여, 지리학이 자연과학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자연지리학은 물리적 과정, 화학적 과정, 생물적 과정을 연구해야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들은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지리학 과목을 대폭 축소하고, 수리화(數理化)와 관련된 과목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심지어 경제지리는 쓸모가 없다고 보아 경제지리 과목마저 없애려고 하였다. 당시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주커전과 같은 지리학계의 중추적 학자

들이 이러한 견해에 비판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그러한 사태를 면할 수 있었다(林超 · 王恩涌, 1984, 18).

1966년 문화대혁명과 함께 대학은 학생모집을 중지하였다. 1971년에 이르러 베이징대학 지질지리학계는 학생모집을 시작했는데, 그 해에는 지질학의 각 전공만 학생을 모집했을 뿐 지리학의 각 전공은 학생모집이 없었다. 이는 당시 학교 당국이 학문은 생산임무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각 전공에 대해 국가건설에서의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과 관련된다. 정부와 학교 당국이 졸업생의 직장을 배치하는 시기였으므로, 특정 전공이 가지는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수요와 역할이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지형학전공은 철도 프로젝트와 수리 프로젝트에 복무할 수 있다고 하여 1972년부터 학생모집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자연지리전공과 경제지리전공은 그에 대응하는 국가건설 부문이 없어서 학생을 모집할 수 없었다. 이에 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중국과학원의 주커전과 황빙웨이 등에 자문을 구하자, 그들은 당시 국제적으로 환경문제가 중시되고 있고 중국 역시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자연지리학 전공자는 환경보호 임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들의 의견에 따라 자연지리전공의 학생 모집 역시 시작되었다(林超 · 王恩涌, 1984, 18). 자연지리 전공 졸업생들은 정부의 환경관리 분야에 직장을 분배 받았다. 경제지리 전공자들은 도시계획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여 주로 정부의 도시계획분야에 직장을 분배 받았다. 이에 따라 자연지리와 경제지리는 각각 '환경'과 '도시계획'으로 연결되었고, 이후 학과 명칭 역시 그렇게 변경되었다. 1978년 베이징대학 지질지리학계는 지질학계와 지리학계로 분리 독립하였고, 지리학계는 1989년 도시 및 환경학계(城市與環境學系)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2년에는 도시 및 환경학과와 환경과학학원을 묶어서 환경학원(環境學院)을 설립하였고, 2007년에는 환경학원의 두 부분을 다시 분리하여, 도시 및 환경학계를 도시 및 환경학원(城市與環境學院)으로 확대 개편하였다('學院'은 우리나라의 단과대학과 유사한 개념이다).

한편, 1949년 4월 중국공산당이 난징을 접수하면서 국립중앙대학은 국립난징대학으로 바뀌었다. 1950년 진링여자대학(金陵女子大學) 문리학원 지리계의 일부 교수와 학생이, 1951년 지난대학(暨南大學) 사지계 지리전공의 학생이 난징대학 이학원 지리학계로 편입되었다. 1952년 전국대학 구조조정으로 국립난징대학은 난징대학으로 개칭되고, 문리과 위주의 종합성 대학으로 개편되었다. 구조조정으로 저장대학, 쓰촨대학 지리학계의 일부 학생들이 난징대학 지리학계에 편입되었다(中國地理學會秘書處編, 1999, 42). 영국 글래스고우대학 박사 출신인 지형학자 런메이어(任美鍔)가 1952년부터 1983년까지 학과장으로 재직하였다. 그는 주커전의 제자였다. 난징대학 지리학계가 제도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은 주커전의 영향이 컸다. 그가 설립한 학과였고, 중국 최초의 지리학과였기 때문이다.

1950년대 초반 구조조정 이후 전국의 지리학 관련 학과들이 겪은 상황은 베이징대학의 경우와 대체적으로 유사하였다. 졸업생의 직장 배치 문제와 지리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련된 바 컸다.

3) 중국과학원 지리연구소의 설립

1940년 충칭에서 설립된 중국지리연구소는 일본의 항복 이후 1947년 여름 난징으로 옮겨왔다. 1949년 4월 난징이 공산당에 의해 점령되자 잠시 군대의 관리를 받았으며, 1950년 4월 베이징에 본부를 둔 중국과학원에 관리가 이첩되었다. 당시 중국과학원 부원장이던 주커전이 지리연구소를 정식으로 성립시킬 것을 주창하였고, 전단계로 설립 주비처를 만들었다. 당시 이 조직에는 지리, 지도, 대지측량의 3개 연구조가 있었다. 1953년 1월 중국과학원 지리연구소가 난징에 정식 설립되었다. 자연지리학자 황빙웨이가 부소장겸 소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설립 당시 지리연구소는 베이징에 중화지리지 편집부와 출장소를 두고 있었다.

1956년 중국과학원 내에 자연자원종합고찰위원회(自然資源綜合考察委員會)가 성립되었다. 위원회 주임은 주커전이었고, 다수의 지리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일종의 '종합 학술 답사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조직의 모델은 스벤 헤딘의 '중국·스웨덴 서북과학고찰단'이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종합 학술답사를 수행하였으며,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1958년 중국 정부는 지리연구소를 베이징으로 옮겼다. 동시에 중국지리학회의 명의 등록 단위가 되었으며, 지리연구소를 통하여 중국지리학회에 공산당 조직이 건설되었다. 당시 연구소 전체 인원은 100여 명이었다고 한다. 일부 인원이 난징에 남았는데, 이들을 조직하여 중국과학원 난징지리연구소를 조직하였다(후에 중국과학원 난징 지리 및 호소연구소(南京地理與湖泊研究所)로 개칭되었다). 같은 해 지리연구소의 대지측량 부문을 우한(武漢)으로 보내 별도의 연구소인 중국과학원 우한 측량제도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창춘(長春)에 중국과학원 창춘지리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 연구소는 주로 습지를 연구하였다(후에 중국과학원 둥베이 지리 및 농업생태연구소(東北地理與農業生態研究所)로 이름이 바뀌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1965년 베이징의 지리연구소 일부 인원을 청두(成都)에 파견하여 중국과학원 지리연구소 서남분소를 설립하였다(이 연구소는 청두지리연구소로 개칭하였고, 1990대에 다시 청두 산지재해 및 환경연구소(成都山地災害與環境研究所)로 바뀌었다). 같은 해 지리연구소의 사막과 빙하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란저우(蘭州)로 파견하여 중국과학원 란저우 사막·빙하·동토연구소(蘭州沙漠氷川凍土研究所)를 설립하였다(이 연구소는 이후 란저우 사막연구소와 란저우 빙하동토연구소로 분리되었다가, 최근 중국과학원 한랭건조지역 환경 및 공정연구소(寒區旱區環境與工程研究所)로 합병되었다). 또한 신장(新疆) 우루무치(烏魯木齊)에 신장지리연구소를 설립하였다(이 연구소는 1998년 중국과학원 신장 생태 및 지리연구소(新疆生態與地理研究所)로 바뀌었다). 1965년 이들 연구소의 설립은 마오쩌둥이 추진한 '삼선건설(三線建設)'의 일부였다.

1972년 자연자원종합고찰위원회를 지리연구소에 합병시켰으나, 1975년 다시 지리연구소로부터 분리시켰다. 1999년 지리연구소와 자연자원종합고찰위원회를 통합하여 '중국과학원 지리과학 및 자원연구소(中國科學院 地理科學與資源研究所)'를 발족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지리학 관련 연구소는 계속 증가해왔으며, 연구소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주로 자연지리학 관련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비록 합병과 분리를 거듭한 경우도 있으나, 오늘날 연구소 조직의 기본 골격이 이 시기에 마련되었다.

4. 결어

이상에서 1909년 중국지학회의 창립부터 1978년 개혁개방 무렵까지 중국지리학의 동향을 주로 학회, 학과, 연구소의 조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09년 중국지학회의 창립은 중국에 근대 학문으로서 지리학이 소개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1921년 주커전에 의해 둥난대학(난징대학)에 중국 최초의 지리학과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주로 '지학(地學)', '사지(史地)' 등의 명칭 하에 대학에 지리학이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1934년 중국지리학회의 창립은 '지학', '사지'에서 벗어나 지리학이 독립적인 활동공간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이 학회를 기점으로 중국에서 현대적이고 독자적인 지리학이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9세기 말 유럽 대학의 학과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학문으로서 지리학이 중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당시 중국의 지리학은 학술적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독립적으로 '지리학'이라는 명칭을 확보하기는 어려웠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정부의 비준을 받은 독자적인 학회와 국책연구소 그리고 몇몇 대학에 지리학과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학계의 학문적 시민권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베이징대학에서는 '지질지리'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여, 여전히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미흡함이 있었다. 1978년 베이징대학에 '지리'라는 이름의 독립된 학과가 만

들어졌다는 것에 근거해서 본다면, 중국 대학에서 지리학이 명실공히 독립적인 학문적 시민권을 얻은 것은 개혁개방 이후로 보인다.

그러나 이 학과는 1989년 그 명칭이 '도시 및 환경학계'로 변경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소련 지리학의 영향으로 자연지리학과 경제지리학 중심의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졌고, 정부와 대학이 졸업생의 직장을 배치하는 체제 하에서 졸업 후 자연지리학 전공자는 환경관리분야에, 경제지리학 전공자는 도시계획분야에 배치되었으며, 이러한 배치가 다시 자연지리학과 경제지리학을 배타적으로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에는 '地理'라는 이름 대신에 '도시 및 환경학계'라는 이름을 달도록 한 것이다.

현재 중국에는 20여 개의 종합대학, 50여 개의 사범대학, 10여 개의 교육대학에 지리학과 내지 지리학과를 모태로 한 학과들이 있다. 상당수의 학과들이 개혁개방 이후 '지리'라는 독립적인 명칭을 얻었다. 이러한 학과들의 연구와 교육체계 역시 개혁개방 이전에 형성된 자연지리와 경제지리 위주의 연구와 교육풍토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이들 학과 또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대부분 '지리(地理)'라는 명칭 대신 '환경(環境)', '도시(城市)', '계획(計劃)', '관광(旅遊)', '자원(資源)' 등의 명칭으로 변경하거나, 그러한 명칭을 '지리'와 병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2만여 명의 회원이 있는 중국지리학회는 여전히 '地理'라는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地理'라는 용어가 기원한 나라에서, '地理'라는 깃발이 '市場'이라는 또 다른 시간을 지나고 있다.

참고문헌

이강원, 2007, 사막중국: 중국의 토지이용 변화와 사막화, 폴리테이아, 서울.

임종태, 2003, 17·18세기 서양 지리학에 대한 조선·중국 학인들의 해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전공 박사학위논문.

한지은, 2011, "근대 중국에서 지리학 학지의 형성," 개념과 소통, 73-103.

郭來喜, 1999, "中國人文地理叢書 序二," 中國經濟地理, 科學出版社, 北京, iii-viii.

郭振淮, 1999, "經濟地理人才的孵化器: 記50年代的中國人民大學經濟地理教研室," 吳傳鈞·施雅風 主編, 中國地理學 90年 發展回憶錄, 學苑出版社, 北京, 267-270.

國立中央研究院 홈페이지(http://www.sinica.edu.tw/index.shtml)

唐錫仁·楊文衡 主編, 2000, 中國科學技術史: 地學卷, 科學出版社, 北京.

斯文·赫定, 1930, "罗布淖尔及最先发现喜马拉雅山最高峰问题," 地學雜誌, 民國二十九年二期, 155-160.

孫敬之, 1953, "斯大林與地理科學:爲紀念斯大林同志在中國地理學會北京分會上的報告," 地理學報, 19(1), 1-9.

孫文, 1965, 建國方略, 中華民國各界紀念國父百年誕辰籌備委員會, 臺北.

施雅風, 1999, "從中國地理研究所到中國科學院地理研究所," 吳傳鈞·施雅風 主編, 中國地理學 90年 發展回憶錄, 學苑出版社, 北京, 238-252.

林超, 1999, "中國地學會(1909-1937年)," 吳傳鈞·施雅風 主編, 中國地理學 90年 發展回憶錄, 學苑出版社, 北京, 224-228.

林超·王恩涌, 1984, "竺可楨先生對北大地理系的關懷," 地理學報, 30(1), 17-18.

吳傳鈞·施雅風 主編, 1999, 中國地理學 90年 發展回憶錄, 學苑出版社, 北京.

王永太, 2006, 鳳鳴華岡: 張其昀傳, 浙江人民出版社, 杭州.

王恩涌·李文彦·陳昌篤, 1999, "清華大學地學系—北京大學城市與環境學系的前身簡史," 吳傳鈞·施雅風 主編, 中國地理學 90年 發展回憶錄, 學苑出版社, 北京, 231-237.

禹貢學會, 『禹貢』(各號).

任美鍔, 1947, 建設地理新論, 商務印書館, 上海.

張同鑄, 1956, "爲帝國主義服務的人文地理學," 地理學報, 22(1), 1-36.

章鴻釗, 1912, "地學會應行事務之商榷," 地學雜誌, 第三年 三·四期 合刊, 31-35.

中國大百科全書 〈地理學〉 編輯委員會, 1992, 中國大百科全書: 地理學, 中國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北京.

中國大百科全書 〈地質學〉 編輯委員會, 1993, 中國大百科

全書: 地質學, 中國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北京.
中國地理學會, 『地理學報』(各號).
中國地理學會, 1957, 蘇聯地理學四十年, 科學出版社, 北京.
中國地理學會秘書處編, 1999, 全國地理單位簡介, 中國地理學會秘書處, 北京.
中國地學會, 『地學雜誌』(各號)
地理學報編輯部, 1994, "中國地理學會大事記," 地理學報, 49(增刊), 742-758.
地理學報編輯委員會, 1953, "糾正錯誤 改進工作," 地理學報, 19(1), 120-121.
陳天民, 1953, "評嚴重缺乏政治思想的'地理學報'," 地理學報, 19(1), 122-124.
竺可楨, 1953, "中國地理學工作者當前的任務: 中國地理學會第一屆全國代表大會開幕詞," 地理學報, 19(1), 9-12.
胡兆量, 1956, "僞科學的白呂納人地學思想," 地理學報, 22(2), 135-148.
黃秉維, 1958, "學習蘇聯感謝蘇聯," 地理學報, 24(1), 19-23.
黃秉維, 1958, "中國綜合自然區劃的初步草案," 地理學報, 24(4), 348-365.
候仁之, 1999, "在燕園里成長," 吳傳鈞·施雅風 主編, 中國地理學 90年 發展回憶錄, 學苑出版社, 北京, 229-230.
候仁之, 2009, 歷史地理學的視野, 三聯書店, 北京.

교신: 이강원, 561-7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haekong@jbnu.ac.kr, 전화: 063-270-2770, 팩스: 063-270-2730)
Correspondence: Kang-Won Lee,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567 Baekje-daero, Deokjin-gu, Jeonju-si, Jeollabuk-do 561-756, Korea (e-mail: haekong@jbnu.ac.kr, phone: +82-63-270-2770, fax: +82-63-270-2730)

최초투고일 2013. 5. 29
수정일 2013. 6. 12
최종접수일 2013. 6. 16